

산학 협력 통한 지속적 연구 주력 학회 회원들의 적극적 노력 당부



원 종 명

한국펄프종이공학회 회장

국내 제지산업은 무역장벽의 혜택, 국내산업 발전 및 중국 특수 등에 힘입어 호황을 누려왔으나, 최근 들어 무역 장벽이 대부분 제거되고, 인건비 상승, 노조 활동의 심화 및 각종 정부의 규제로 말미암아 많은 국내 기업들이 동남아로 이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발전으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67년 설립 이래, 국내 제지 산업의 학술발표와 기술자 교육, 각종 학술 간행물 발간 및 기술 정보 수집과 교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펄프종이공학회는 지난 4월 27일 열린 제39회 정기총회에서 강원대 제지공학과 원종명 교수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동안 한국펄프종이공학회 총무이사, 편집위원장, 행사 위원장 및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펄프종이공학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온 원종명 신임 회장을 만나, 활동 계획을 들어보았다.

“한국펄프종이공학회의 신임회장으로써 국내 제지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국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한국위생지공업협동조합, 한국종이용기공업협동조합 등 제지 및 지류포장 관련 단체 및 회원사들, 그리고 관련 대학 및 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

정보 기술 공유로 국제 경쟁력 확보해야

관계의 구축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원종명 신임회장은 “과거 순수한 학술단체로서의 이미지를 벗고, 학술 활동뿐만 아니라 국내 제지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은 원 회장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대학교 제지 공학과 교수로 재직,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 부학장과 강원대학교 부설 창강제지기술연구소 소장을 역임해 왔다.

국내 펄프 제지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일환으로 학술 및 기술 정보를 수집하여 배포하고, 연 2회 정기 학술발표회의, 연 1회의 국제세미나, 연간 3~4회의 제지기술자 교육을 실시해 온 한국펄프종이공학회. 원종명 회장은,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학계와 산업계의 협력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다.

“정부의 각종 시책과 더불어 표면적으로는 산학연관 협조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된 것 같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회장 임기 동안 특히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원종명 회장은 산학 협력을 통한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산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 특히 기존 협회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찾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학회가 되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진한다.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물론 항상 부족하지도 넘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원 회장은 한국펄프종이공학회 뿐만 아니라, 전 산업계가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마음의 자세로 임할 때 위기를 보다 극복할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덧붙여 그는 모든 회원이 학회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때 한국펄프종이공학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학 협력을 통해 학회의 발전과 산업계의 발전을 두루 발전시켜 나갈 원종명 신임회장.

펄프 제지 기술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국내 펄프 제지산업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